



초등 학령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자기결정 관련 문헌연구

(Literature Review on Self-determination Studies for Elementary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조은별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서효정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장애학생의 자기결정을 증진하는 것은 그들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 및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Wehmeyer, Shogren, & Seo, 2015)
- 최근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포괄하는 긍정적 심리학의 관점에서 자기결정의 개념 및 관련 이론이 재정립되었으며, 이에 “모든” 학생들의 자기결정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Shogren, Wehmeyer, Palmer, et al, 2015)
- 국내 특수교육 분야의 자기결정 연구 동향에 대한 논문(김수진, 박은미, 2017)에 따르면, 연구참여자의 연령대는 학령기가 가장 많았으며, 학령기 중에서도 중·고등학령기에 편중되어 있음, 자기결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 학령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결정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연구주제

- 초등 학령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자기결정 관련 연구 주제 및 동향은 어떠한가?
- 분석 기준(발표 연도, 학술지, 연구방법, 자기결정의 정의, 자기결정 증진의 영향, 자기결정 • 자기결정 관련 기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자기결정과 관련된 기타 쟁점)에 따른 초등 학령기의 장애학생, 일반학생,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그리고 학습부진 대상의 연구는 각각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 방법

□ 분석 대상 논문 선정기준 및 절차

학술연구 정보 서비스(www.riss4u.net)를 통해 ‘초등학생’, ‘자기결정’ 및 자기결정의 하위요소를 주제로 검색

- 우리나라에 자기결정의 개념이 소개되고 첫 연구가 발표된 2000년대 초반(김혜경, 2001)부터 2017년까지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설정
- 등재 및 등재 후보지로 등록되어 학회에 발표된 논문
- 연구대상에 초등 학령기 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논문, 연구대상 학생이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경우 최종 선정 연구에 포함함.

검색된 60편의 논문 중, 연구대상이 초등 학령기 학생이 아닌 부모대상인 연구 1편(박태자, 김미옥, 천성문, 2016), 자기결정과 관련된 연구이기는 하나 연구의 목적이 자기결정 향상이라기 보다 교과학습의 동기향상인 연구 1편(김명숙, 2007), 총 2편이 배제되었으며, 이에 총 58편의 논문을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

□ 분석 변인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논문의 분석을 위하여 이숙향(2008)와 김수진과 박은미(2017)가 제시한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함. 분석변인은 일반적 분석과 세부 분석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분석변인들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비교에 중점을 두어 분석함.

구분	세부분석변인
I. 일반적 분석	발표연도
	학술지
	연구방법
II. 세부 분석	II-1. 자기결정의 정의 유무 및 인용한 이론
	II-2. 자기결정* 증진의 영향(자기결정이 독립변인인 연구)
	II-3. 자기결정*, 자기결정 관련 기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연구 (자기결정이 종속변인인 연구)
	II-4.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조사연구 중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II-5. 자기결정*과 관련된 기타 쟁점 자기결정과 기타변인 간의 관계성 검증 이질적인 집단 간 자기결정 비교 연구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상위 개념인 자기결정, 자기결정 기술, 자기결정과 관련된 증진, 자기결정과 관련된 특수교육 및 일반교육 쟁점

연구결과 - 1. 일반적 분석

1) 발표 연도 분석

발표 연도	장애학생	일반학생	장애+일반	학습부진	합계
2000					
2001	1*(1.7)				1(1.7)
2002					
2003	1(1.7)	1(1.7)			2(3.4)
2004					
2005	1(1.7)				1(1.7)
2006	2*(3.4)				2(3.4)
2007	1(1.7)	2(3.4)	2(3.4)		5(8.6)
2008	1(1.7)	2(3.4)	1(1.7)		4(6.9)
2009	2*(3.4)	1(1.7)		1(1.7)	4(6.9)
2010	4(6.9)	3(5.1)			7(12.1)
2011	2(3.4)	3(5.1)	1(1.7)	1(1.7)	7(12.1)
2012	1(1.7)	2(3.4)	2(3.4)		5(8.6)
2013	1(1.7)	1(1.7)			2(3.4)
2014	2*(3.4)	6(10.3)			8(13.8)
2015	2(3.4)	1(1.7)			3(5.2)
2016		1(1.7)			1(1.7)
2017	3(5.1)	2(3.4)		1(1.7)	6(10.3)
계(%)	24(41.3)	25(43.1)	6(10.3)	3(5.2)	58(100)

참고. 연구 대상으로 초등·중등학생을 모두 포함하는 논문은 *표시 하였으며, *표시가 된 연도에 해당 논문이 각각 한 편씩 존재함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총 58편의 논문 중 초등학령기의 장애 학생,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각각 2001년과 2003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임. 한편, 장애학생 과 일반학생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2007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6편이며, 학습부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2009년을 시작으로 총 3편임을 알 수 있음.

이와 더불어 초등 학령기 장애학생 자기결정 관련 논문 중 연구 대상으로 초등학생과 중등 학생을 모두 포함한 논문은 2001년,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4년에 각각 1편씩 있었으며, 각 논문 에서 초등학생의 비율은 2001년에 30.9%, 2006년에 32.3%, 2009년에 50%, 그리고 2014년에 27.2%로 나타남.

2) 학술지 분석

총 58편의 논문을 학술지 별로 분석한 결과, 지적장애연구에서 7편(12.1%)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그 뒤를 이어 특수교육학연구가 5편(8.6%), 특수교육저널:이론과 실천 과, 교육심리연구가 각각 3편(5.2%), 그리고 통합교육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학습장애연구, 교과교육학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가 각각 2편(3.4%)으 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교과교육연구, 교육융합연구, 발달장애연구, 발달장애학회지, 인문사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유아특수교육연구,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교과융합연구, 교육문화연구, 교육방법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미래청소년학회지, 실과교육연구, 아동연구, 영재교육연구, 직업교육연구, 창의력 교육연구, 청소년학연구, 초등교육연구, 초등교육연구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한국교육,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한국웰니스학회지, 한국체육교육학회지,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에서 각각 1편(1.7%)씩 존재함.

이 중 눈여겨볼만한 점은 정서행동장애 학술지에서 유일하게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것을 알 수 있음.

3) 연구방법 분석

연구방법	장애학생	일반학생	장애+일반	학습부진	합계
실험연구	12*(20.7)	6(10.3)	2(3.4)	1(1.7)	21(36.2)
조사연구	4*(6.9)	19(32.8)	-	2(3.4)	25(43.1)
문헌연구	7(12.1)	-	-	-	7(12.1)
질적연구	1(1.7)	-	-	-	1(1.7)
조사연구 질적연구 병행	-	-	3(5.2)	-	3(5.2)
실험연구 질적연구 병행	-	-	1(1.7)	-	1(1.7)
계(%)	24(41.3)	25(43.1)	6(10.3)	3(5.2)	58(100)

참고. 연구 대상으로 초등·중등학생을 모두 포함하는 논문은 *표시 하였으며, *표시가 된 연도에 해당 논문이 각각 조사연구에서 3편, 실험연구에서 1편이 존재함

총 58편의 논문을 연구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연구방법은 실험연구가 12편(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연구방법은 조사연구가 19편 (32.8%)으로 가장 많았음.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의 연구방법은 조사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한 연구가 3편(5.2%)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연구방법은 조사연구가 2편(3.4%)으로 가장 많았음.

1) 자기결정의 정의 유무 및 인용한 이론

인용한 자기결정 이론	자기결정의 정의 유무									
	장애학생		일반학생		장애+일반		학습부진		계(%)	
	n	%	n	%	n	%	n	%	n	%
없음	9	15.5	7	12.1	2	3.4	1	1.7	19	32.8
Wehmeyer	15	25.9	-	-	2	3.4	1	1.7	18	31.0
Ryan & Deci	-	-	17	29.3	1	1.7	1	1.7	19	32.8
다양한 학자의 이름을 종합하여 제시	-	-	1	1.7	1	1.7	-	-	2	3.4
계(%)	24	41.3	25	43.1	6	10.3	3	5.2	58	100

참고. 자기결정 관련 이론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를 설정한 논문의 경우 제외함.

총 58편의 논문을 자기결정의 정의 유무 및 인용한 이론에 따라 분류한 결과, 장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 Wehmeyer의 정의를 인용한 논문이 15편(25.9%)로 가장 많았고, 일반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에는 Ryan과 Deci의 정의를 인용한 논문이 17편(29.3%)으로 가장 많았음.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에서는 자기결정의 정의가 없는 논문이 2편(3.4%), Wehmeyer의 정의를 인용한 논문이 2편(3.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부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에서는 자기결정의 정의가 없는 논문, Wehmeyer의 정의를 인용한 논문, Ryan,Deci의 정의를 인용한 논문이 각각 1편(1.7%)씩 존재함.

2) 자기결정 증진의 영향(자기결정이 독립변인인 연구)

자기결정 증진의 영향	장애학생		일반학생		장애+일반		학습부진		계(%)	
	n	%	n	%	n	%	n	%	n	%
사회적 적응행동	1	16.7	-	-	-	-	-	-	1	16.7
수업참여행동, 학업성취도 및 문제행동	1	16.7	1	16.7	1	16.7	-	-	3	50
창의적 사고	-	-	1	16.7	-	-	-	-	1	16.7
자기효능감	-	-	1	16.7	-	-	-	-	1	16.7
태권도 옆차기 학습	-	-	1	16.7	-	-	-	-	-	-
계(%)	2	33.3	4	66.7	1	16.7	-	-	6	100

참고. 연구 대상이 초등·중등학생을 모두 포함하는 논문은 *표시 하였음.

총 58편 논문의 중재연구 중 자기결정 증진의 영향(자기결정이 독립변인인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는 총 6편임. 먼저, 장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 자기결정 증진의 영향을 사회적 적응행동으로 본 논문 1편(16.7%), 수업참여행동, 학업성취도 및 문제행동으로 본 논문이 1편(16.7%) 존재했으며, 일반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 자기결정 증진의 영향을 수업참여행동, 학업성취도 및 문제행동으로 본 논문 1편(16.7%), 창의적 사고로 본 논문 1편(16.7%), 그리고 자기효능감으로 본 논문이 1편(16.7%) 존재함.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 자기결정 증진의 영향을 수업참여행동, 학업성취도 및 문제행동으로 본 논문이 1편(16.7%) 있었으며, 자기결정 증진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 중 학습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존재하지 않음.

3) 자기결정, 자기결정 관련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연구 (자기결정이 종속변인인 연구)

자기결정, 자기결정 관련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연구	장애학생		일반학생		장애+일반		학습부진		계(%)	
	n	%	n	%	n	%	n	%	n	%
놀이, 체육, 게임활동 및 역할극 중재	2	11.8	-	-	1	5.9	1	5.9	4	23.6
의사결정기술교수프로그램	2	11.8	-	-	-	-	-	-	2	11.8
자기결정 프로그램	2	11.8	-	-	3	17.7	-	-	5	29.5
지역사회중심 현장체험학습	1	5.9	-	-	-	-	-	-	1	5.9
가정과 연계한 자기일과 계획하기	1	5.9	-	-	-	-	-	-	1	5.9
컴퓨터 시뮬레이션 활용 집단상담	-	-	1	5.9	-	-	-	-	1	5.9
조기영어 공교육	-	-	1	5.9	-	-	-	-	1	5.9
진로교육프로그램	-	-	2	11.8	-	-	-	-	2	11.8
계(%)	8	47.1	4	23.6	4	23.6	1	5.9	17	100

참고. 연구 대상이 초등·중등학생을 모두 포함하는 논문은 *표시 하였음.

총 58편 논문의 중재연구 중 자기결정, 자기결정 관련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연구(자기결정이 종속변인인 연구)는 총 17편임. 먼저, 장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 놀이, 체육, 게임활동 및 역할극 중재 / 의사결정기술교수 프로그램 / 자기결정 프로그램이 각각 2편(1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학생으로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 진로교육프로그램이 본 2편(11.8%)로 가장 많았음.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모두 연구대상인 논문의 경우, 자기결정 프로그램이 3편(17.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습부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 놀이, 체육, 게임활동 및 역할극 중재가 1편(5.9%) 존재함.

4)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장애학생		일반학생		장애+일반		학습부진		계(%)	
	n	%	n	%	n	%	n	%	n	%
가족체제유형	1	16.7	1	16.7	-	-	-	-	2	33.4
장애정도, 학교급간 차이	1	16.7	-	-	-	-	-	-	1	16.7
학년 혹은 성별	-	-	1	16.7	-	-	-	-	1	16.7
부모의 학생에 대한 자율성 지지	-	-	1	16.7	-	-	-	-	1	16.7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	-	-	1	16.7	-	-	-	-	1	16.7
계(%)	2	33.4	4	66.8	-	-	-	-	6	100

총 58편의 논문을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따라 분류한 결과, 장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가족체제유형 / 장애정도, 학교급간 차이가 각각 1편(16.7%)씩 존재했으며, 일반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 가족체제유형 / 학년 혹은 성별 / 부모의 학생에 대한 자율성 지지 /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이 각각 1편(16.7%)씩 존재함. 이 밖에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과 학습부진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 중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관련된 연구는 존재하지 않음.

5) 자기결정과 관련된 기타 쟁점

가. 자기결정과 기타 변인 간의 관계성 검증

자기결정과 기타 변인 간의 관계성 검증	장애학생		일반학생		장애+일반		학습부진		계(%)	
	n	%	n	%	n	%	n	%	n	%
자의식, 자기효능감, 비합리적 신념 ↔ 발표불안	-	-	1	5.9	-	-	-	-	1	5.9
자기결정성 동기요인 ↔ 인지전략, 학업성취	-	-	6	35.3	-	-	1	5.9	7	41.2
창의성 ↔ 성취목표동기 ↔ 자기결정성 동기	-	-	1	5.9	-	-	-	-	1	5.9
부모의 학습관여 → 자기조절학습	-	-	1	5.9	-	-	-	-	1	5.9
자기효능감, 진로태도성숙	-	-	1	5.9	-	-	-	-	1	5.9
교사의 조건부관심 및 자율성지지 ↔ 자기결정성동기, 학업참여 및 성취도	1	5.9	1	5.9	1	5.9	1	5.9	4	23.5
부모애착 ↔ 자기결정성동기 ↔ 학업스트레스 ↔ 자기효능감	-	-	1	5.9	-	-	-	-	1	5.9
계(%)	1	5.9	13	76.5	1	5.9	2	11.8	17	100

* 자기결정과 기타 변인간의 관계성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자기결정과 관련된 요소만 보고함.

총 58편의 논문을 자기결정과 관련된 기타 쟁점 중 자기결정과 기타 변인 간의 관계성을 검증한 결과, 장애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 교사의 조건부관심 및 자율성지지 ↔ 자기결정성 동기, 학업참여 및 성취도가 1편(5.9%) 존재했으며, 일반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 자기결정성 동기요인 ↔ 인지전략, 학업성취가 6편(35.3%)로 가장 많았음. 이 밖에도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연구대상인 논문의 경우, 교사의 조건부관심 및 자율성지지 ↔ 자기결정성동기, 학업참여 및 성취도가 1편(5.9%) 존재했으며, 학습부진을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 자기결정성 동기요인 ↔ 인지전략, 학업성취와, 교사의 조건부관심 및 자율성지지 ↔ 자기결정성동기, 학업참여 및 성취도가 각각 1편씩(5.9%) 존재함.

나. 이질적인 집단 간 자기결정 비교 연구

이질적인 집단 간 자기결정 비교 연구	장애학생		일반학생		장애+일반		학습부진		계(%)	
	n	%	n	%	n	%	n	%	n	%
사회적 조망수용능력과 자기결정능력	1	25	-	-	-	-	-	-	1	25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학교적응	-	-	-	-	1	25	1	25	2	50
자기결정성동기, 타인인정추구와 지능신념	-	-	1	25	-	-	-	-	1	25
계(%)	1	25	1	25	1	25	1	25	4	100

총 58편의 논문을 자기결정과 관련된 기타 쟁점 중 이질적인 집단 간 자기결정 비교연구의 분석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는 지적장애학생과 뇌성마비 학생의 사회적 조망수용능력과 자기결정 능력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는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에 따른 타인인정추구와 지능신념의 이중매개효과를 비교함. 이와 더불어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는 학습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비교하였으며,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에서는 학습부진 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업동기와 자기결정성 동기를 비교하고자 함.

다.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총 58편의 논문 중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논문은 오직 장애학생이 연구대상인 논문에서만 1편 존재하였으며, 자기결정 기술이 포함된 IEP개발에 의한 자기결정 인식을 알아보하고자 함.

초등 학령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자기결정 관련 문헌연구

(Literature Review on Self-determination Studies for
Elementary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조은별 (공주대학교)

서효정 (공주대학교)

<요약>

자기결정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에게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특수교육분야의 자기결정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은 주로 학령기 학생이며, 그 중에서도 중·고등학생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과 관련된 연구 중 초등 학령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논문을 살펴보고, 분석 기준에 따른 두 집단의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논문은 우리나라에 자기결정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2000년대 초반부터 2017년까지의 국내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대상연구 선정을 위한 포함 및 배제 기준에 따라 총 58편의 논문을 최종 선정되었다. 최종 선정된 논문들은 일반적 분석과 세부 분석 기준에 따라 분류 및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분석(발표연도, 학술지, 연구방법), 세부 분석(자기결정의 정의 유무 및 인용한 이론), 자기결정 증진의 영향, 자기결정 및 자기결정 관련기술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연구,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자기결정과 관련된 기타 쟁점-가. 자기결정과 기타 변인 간의 관계성 검증, 나. 이질적인 집단 간 자기결정 비교연구, 다.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각각의 분석 기준에 대하여 장애학생, 일반학생,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 집단으로 각각 나누어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논의점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